

토 론 자 료

대구대학교 발전포럼: 안정적 재정운영 및 교직원 복지 향상방안

과학교육학부 박 중 근

토론 안건 1. 입학정원 축소로 우리는 무엇을 얻었나?

우리학교의 입학정원은 2015년 4,351명에서 2017년 4,059명으로 292명이 줄면서, 2015년 대비 6.6%가 줄었다. 영남대학교 2.7%, 계명대학교 4.5%, 대가대학교 5.1% 그리고 서울의 국민대학교 4.0%이다. 2013년 자료가 있다면 이 수치가 달라졌을 것이다.

대학에서 입학정원 구조조정을 선도적으로 한 이유 중 하나는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선정되기 위함이라고 알고 있다. 국고보조금을 2016년에 564억으로 많이 받았다. 그러나 다른 대학과 비교하면 입학정원을 손해 본 것만큼 좋은 성적이라고 할 수 없다. 영남대는 709억, 계명대 548억, 대가대 350억이다. 입학정원 축소로 나아진 것은 전임교원 확보율이 68.5%에서 71.1%로 미미하게 증가한 것뿐이다.

토론 안건 2. 인건비를 줄이는 것만이 해결법일까?

대학의 지출 중 보수(인건비) 부분을 살펴보고 싶다. 대학의 구성원 중에서 학생도 중요하지만, 교직원도 필수적이다. 특히 교직원은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대학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 구성원이며, 학생이 대학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라고 본다.

우리학교의 보수 지출 비율은 33.8%이다. 전국 1만 명 이상 대학 평균은 42.1%, 경북 평균은 37.8%이다. 우리 주변의 영남대 37.5%, 대가대 44.3%, 계명대 41.3%이다. 대학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는 다른 대학에 비해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대학에 비해 지출이 적은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학교의 교직원 수가 적거나 아니면 다른 대학에 비해 보수가 적은 것이다. 우리 대학이 타 대학에 비해 보수가 적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면 다른 대학에 비해 교수의 수와 직원의 수가 적다는 것이다. 실제 2016년 우리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71.1%이고 영남대학교 81.4%, 계명대학교 83.4%, 대가대학교 94.0%, 서울 소재의 국민대학교는 86.1%이다.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직원의 경우도 우리학교가 주변의 다른 대학보다 적다.

과연 당장의 재정 건전성이 10년 후의 대학에서 장점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토론 안건 3. ‘학생이 행복한 대학’ 이라고 말을 하고 싶다.

올해 3월에 2명의 조교와 대화를 하였다. 학생 중 일부는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 아니라 교직원이 행복한 대학이다” 라는 말을 한다고 한다. 학생이 행복한 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많은 사업이 진행되었다. 우리학교 연구학생경비가 우리 주변 대학보다 3~4%p 높고 전국 평균보다 10%p 높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물론 연구학생경비에는 연구비도 있다. ‘대학알리미’의 2014년 자료를 보면 우리 학교의 교내연구비가 다른 대학에 비해 절대 높지 않다. 즉 다른 대학보다 높은 이유는 학생경비 부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학생 경비의 사용처와 방법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 지출 = 보수 + 연구학생경비 +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 연구비 + 학생경비 + 입시관리비

학생경비 = 장학금, 학비감면, 실험실습비, 논문심사료, 학생지원비, 기타

※ 이외의 생각해봐야 되는 것

1. 적립금 문제

- 적립금은 어떻게 운용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써야 하는가?
- 2016년 195억 인출은 어디에 사용했는가?